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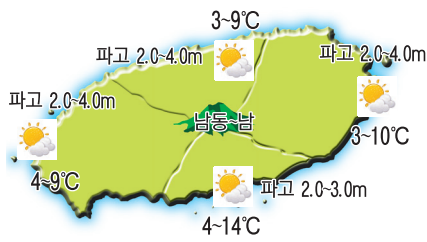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3일 화요일 음 1월 12일 (4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 낮 최고기온은 9-14℃로 전망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월드뉴스

70일 만에 대서양 건넌 21살 뱃사공

여성 홀로 횡단 '세계 최연소'

영국의 21살 여성이 홀로 노를 저어 70일간 사투를 벌인 끝에 대서양을 건넌 데 성공해 화제다.



대서양을 건넌 제스민 해리스.

22일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제스민 해리스(21)은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스페인 카나리제도를 출발, 매일 2시간씩 노를 저어 4828km의 대서양을 가로질러 지난 20일 서인도제도 안티파섬에 도착했다.

해리스는 항해 중 체력적 한계에 도달하기도 하고 높은 파도에 휩쓸리며 다치기도 했지만 매주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올리며 항해를 즐기려고 노력했다.

그의 정확한 항해 시간은 70일 3시간 48분이었다. 그는 홀로 노를 저어 대서양을 건넌 세계 최연소 여성에 등극했다.

해리스는 수영 강사 출신답게 무사히 다시 배에 올라탔으나 왼쪽 팔꿈치를 다쳐, 전화로 의사의 원격 진료를 받았다. 그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에 나서 대기록을 수립했다.

수영 강사였던 그는 2018년 노 젓기 대회를 보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후 꾸준한 연습을 이어오다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노 젓기' 대회에 출전했다.

그의 도전으로 비영리단체 셀터박스는 1만4000달러(약 1555만 원)를 모금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살암시른 살아진다. 우리네 어머니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다.

어쩌면 행복이나 삶의 질 등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본질과 동떨어진 이 삶에는 애환과 슬픔과 절절한 생명력이 짙게 드리워진다.

바다를 끼고 쪽 뻗은 해안도로, 경치 좋은 곳이면 들어선 개성 있는 카

살암시른 살아진다?

폐, 섬세한 해안선과 조화를 이루는 쪽빛 바다. 여느 외국의 유명 관광지 부럽지 않은 제주의 풍경이다.

그러나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제주 바다는 매년 습격하는 불청객 썩셈이 모자반, 사라지는 조간대와 모래사장, 오염과 남획에 의한 연근해의 황폐화 등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바다와 오름뿐이라, 제주 곳곳 몸살로 아프지 않은 곳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다.

바다를 끼고 쪽 뻗은 해안도로, 경치 좋은 곳이면 들어선 개성 있는 카

좁은 자연과의 공존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공존도 위태롭다.

살암시른 살아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쳐놓고 본다면, 산다는 게 뭐 그리 별난 일일까도 싶다. 시간을 살아내는 게 삶의 전부라면, 살아가는 한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온갖 쓰레기로 뒤덮이고 오페수로 오염돼 거품이 이는 바닷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관광객의 등 뒤로 황량

함이 넘치는 풍경을 상상해본다. 바다의 생명이 다하는 속에서 인간의 삶은 지속될 수 있을까? '살제하른 살아진다'. 이제 생존을 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삶은 잘 살려고 하는 의지와 욕구 위에서 꾸러지는 것이고, 살려고 하면 길을 찾아야 한다.

살아갈 수 있는 거친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한 데 있다. 어머니 세대의 질곡을 지나 이제 우리는 풍요의 길목에서 다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당장 지금부터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는 청정의 땅이자 공존의 세상이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이므로.

열린마당

경량 칸막이를 알고 계신가요?



조원훈 서귀포소방서 대인119센터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여러 논점들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도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는 세대간 경량칸막이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시 주출입구로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 손쉽게 부수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얇은 벽을 말한다.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1992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부터는 경량 칸

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입주주민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의 시행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유사시 자동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김송희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건축에 드는 비용을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농어촌지역(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제외)의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어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농어촌지역 주민은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귀농·귀촌인은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해야 하고,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이며, 건축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주택과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 수수료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본 사업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ju Hanra Nongwon, featuring domestic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lim Nongwon, listing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Gamgul Nongwon, highlighting product quality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gul Nongwon, showcasing a variety of citrus fruits and their benefits.